

교회 리더의 조건: 선한 양심, 분별력, 결단력

히13:18

세상에는 여러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 이끄는 사람들(leaders), 따라가는 사람들(followers)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를 말하려 함이 아니다. 모두가 이끄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단체나 조직은 망한다. 둘 다 필수적이다.

대개 리더는 소수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인류 역사, 성경 역사: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따라가는 사람들의 운명과 행복이 바뀐다.

잠언과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 준다.

구약 성경 이집트 탈출 이후 모세가 거의 혼자 백성들의 모든 일을 처리함

출18장,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백성의 리더들을 세우라고 말함

기준(18:21-22)

신약시대, 초대 교회의 팽창,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팽창함
리더들을 세우라(행6), 리더의 조건(6:3)

교회에도 목사들을 포함해서 집사, 지역 인도자, 각종 섬김 부서의 리더들이 필요하다. 자매들 모임,
교회 학교 교사들의 리더가 필요하다.

2023년에는 여섯 분이 집사, 열두 분이 지역 인도자

▶ 섬김 부서

예배 진행:

○ 안내 위원, ○ 침례, ○ 주의 만찬, ○ 사진

방송실:

차량/주차 관리, ○ 컴퓨터 주차 등록

서점/도서관

건물시설관리

애경사

음악

주방 섬김

미디어 선교, ○ 미디어 포장

교회 학교

예배 찬양 인도

2023년 리더들: 먼저 목사와 함께 목회의 부담을 함께 지고 나누어 주는 것에 감사

리더들의 기본 요건

리더는 회중들 가운데서 나온다.

그래서 리더는 이끄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다.

잘 섬겨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되면 잘할 것이다. No! 과거 전력이 좋아야 한다.

우리는 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한다. 섬기는 리더십

막10:42-45,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10:43)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10: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10:45)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살피는 일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행위

행3:6,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다.

부부가 공예배에 신실해야 한다.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

목상과 경전서적 읽기, 성도들이 물으면 대답해야 한다. 그런데 리더가 읽지 않으면 되겠는가, 성경 지식이 없으면 되겠는가?

리더들은 대화 및 교제 시 육신적인 면보다는 영적인 면에 더 치중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품: 선한 양심

리더십: 구약의 조건, 신약의 조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총 6번

1. (행 23:1)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2. (딤후 1:5) 『한편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3. (딤후 1: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4. (히 13:18)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5. (벧전 3: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되게 비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함이라.』
6. (벧전 3:21) 『그 일과 같은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니라.)』

기본적인 매너

1. 웃으며 인사하기 - 강조하고 강조한다.
2. 가깝고 편한 사람들끼리만 있지 말고 되도록이면 새로 오거나 혼자 있는 분께 다가가서 이야기 들어 주기
3.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한두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교제. 남을 살펴보는 눈이 필요하다. 무슨 필요가 있는지...
4.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특히 목사나 사모가 이야기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동의를 되면 추임새를 넣어도 되지만 추임새가 너무 심하면 모두에게 불편을 끼친다.
추임새: 판소리에서 고수나 청중이 소리판의 흥을 돋우기 위해 곁들이는 조흥사(助興詞) 및 감탄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추임새라는 말은 '실제보다 높여 칭찬하다'라는 뜻의 '추어주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얼씨구", "얼씨구야", "얼썬", "으이", "허이", "허", "좋다", "아뵤", "잘한다", "그러지" 등이 그 예이다. 판소리 외에 민요, 잡가, 무가 등 다른 성악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추임새는 아멘과 같다. 너무 많으면 보기에 듣기에 흉하다.
5. 집사와 지역 리더는 각각의 역할이지 상하 관계가 아니다. 섬김 부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사는 교회의 가치, 철학, 문화 등을 숙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사람이다.

기본적인 책임: 분별력, 결단력

인품이 좋다고만 해서 리더가 될 수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구약 모두 리더십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교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임스 성경, 신약식 교회, 건전한 교리, 구원, 국가관, 세상관 등

문제: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

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교회는 곧바로 순수성을 잃고 해체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분들은 분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 가치, 문화,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내보내야 한다.

이것은 사랑과 거룩함이 충돌하면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다.

사랑은 유동적이다(사람, 상황마다 다르다), 거룩함은 고정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는

문서에

그러므로 리더들은 냉정해야 할 사람이나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교회 문화, 가치에 반하는 분들

분별력,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이다.

이 일을 못하면 리더를 그만 두어야 한다.

〈믿음이 다른 분들 권면해서 내보내기〉, 2022년 9월 23일

안녕하세요? 요즘 교회가 커지다 보니 우리와 믿음이 다른 분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믿음이 다른 분들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과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가르치거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오늘은 성경적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한두 번 해 보고 상대방이 성경대로 바뀔 사람인지,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할 사람인지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께서 계시면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분별이 서지 않아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한테 목소리를 높여서 설명해 보아야 시간 낭비임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로 일하시는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것을 신속히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시간 낭비하며 다투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로 가서 평안히 믿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다시는 우리 교회에 와서 논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10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여기의 이단(다른 교리를 가지고 분파를 만드는 사람)

11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이런 기준에 따라 우리는 무익하고 헛된 이야기는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말은 다른 교리를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 부정, 오순절 은사 운동(신유, 방언, 신사도), 불량한 복장, 공산주의 사회주의, 낙태 찬성 등의 교리를 가지고 오는 분들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믿음과 동일한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그분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리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지 관찰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그들이 물으면 성경대로 권면하면 됩니다.

신약 성경의 지역 교회는 교리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히 교회 리더들은 다른 교리나 불량한 복장 등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들을 분간해서 성경대로 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공의와 거룩함(교리)이 먼저입니다.

이 문제를 잘 판단해서 성경대로 치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예배에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는지도 눈여겨보고 시정하게 권면해야 합니다(운동모자, 등산복, 반바지 착용, 시도 때도 없이 큰소리로 아멘을 자주 하는 것, 피아노 반주가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박수하는 것 등).

목사 부부가 일일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으니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서 잘 시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특히 목사의 설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모두가 늘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리더의 조건: 선한 양심, 분별력과 결단력